

기후성(岐阜城)의 기초 부분은 사이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돌만 겹겹이 쌓은 석축 옹벽 형태로 되어 있다. 석축은 안정성이 높은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아래 부분은 원래 1600년 이전의 것이었지만, 1910년경 기후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천수각과 돌담의 대부분을 복원했다. 이때 복원된 천수각은 1943년에 불에 타 소실되었다가 1956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재건되었다.